

“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

■ 이종윤 원로목사

성도가 어떻게 대담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토록 많은 위험과 위협을 겪으면서도 뜨거운 열정과 불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평온한 마음을 갖고 가장 행복하게 인생을 산 사도 바울을 탄복과 기이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바울은 우리를 근심케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현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그는 시간의 그림자를 앞질러 가고 영원을 현실로 끌어들이면서 산 사람이다. 그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온 마음을 기울였다. 그는 자신을 강하고 굳세며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든 깊고 즐거운 평안을 체험하였다.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담대하게 사는 기술 즉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기술을 습득했으면 좋겠다.

한여름의 곤충처럼 짧은 인생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모든 것이 끝나 버린다. 우리는 오감에 의해서 인지되는 당연한 현세에만 너무 갇혀서 살고 있다. 우리의 영혼은 몸매에 매여 있고 그날의 환경에 갇혀 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에 매이는데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의 총명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면 요단강 저편에 이르기 전에 이제 여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도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대적변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산 사람이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죽음을 땅에 있는 그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말한다. 멸망이나 멸절이라 하지 않고 즉 우리 장막집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을 잃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장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자신이 잠시 거주하기 위해 그럭저럭 꾸려가던 장막을 접은 정도에 비유하고 있다. 그 이후의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자기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죽음을 변화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했지만 그 일은 기꺼이 주님 손에 맡기고 주안에서 죽는 복된 성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았다. 사도는 자신이 입고서 살고 있는 몸은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것으로 보았다. 장막 깎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던 바울은 무너지기 쉬운 장막을 인생의 몸으로 비유한 것이다.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와서 쳐도 무너지는 장막처럼 미세한 유독물질이나 하찮은 것이 사람의 생명을 끝낼 수 있다. 깨어질 질그릇 같은 우리가 계속 산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다.

이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오래도록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죽음에 시달리지 않고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거추장스런 틀이 해체되면 우리는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알 속에 들어있는 병아리와 같이 껍질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죽음에 이 껍질을 깨트린다. 부화한 햇병아리가 껍질 깨진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을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지라도 겁없이 떠돌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준비되어 지체할 없이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 무너질 장막집이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대저택으로 발전한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서 살게 될 터이니 몸을 버리는 것이 분명히 유익하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중세기에 악인들이 죽음을 두려워 한 나머지 수도사의 옷을 구입하여 입고 죽었다는 우스꽝스런 이야기가 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우리 예수님이 마련하신 천국집으로 이만갈 터이니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담대하게 살자.
-한국장로신문 2012년 6월 23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5월 다섯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일은 총회환경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시대적 사명을 재확인하고 실천을 결단하는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529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 피조물의 희망과 우리의 사명 ”

■ 로마서 8:18-23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이 지구 평균보다 더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위험성은 각종 자연재해와 신종 전염병,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의 등장을 초래하여 인간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환경과 생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구가 1)하나님의 피조물이며 2)이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있으며 3)창조질서를 보존함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4)지구생명 공동체를 더 풍성한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 신앙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 것인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환경, 생태 문제는 왜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 '매우 좋다'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세계가 이상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인간의 범죄 이후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창 3:17,18) 시작한 인간의 죄입니다. 죄의 근본은 이기심과 탐욕입니다. 각종 교통수단들이나 현대 기술의 사용이 탄소생산을 유발하고 기온 상승의 중요 원인임도 밝혀졌습니다. 욕심이 만든 결과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또 다시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혼란시킨다면 어떤 엉겅퀴와 가시가 우리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오5장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더 이상 탐욕의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길상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만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보다 더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해야할 사명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또 다른 책임은 다음 세대, 즉 우리 후손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에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도리가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10지파가 나라를 분리하여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그때부터 북왕국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변질되고 유행반란이 줄을 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한 탐욕의 정책이 후손들을 비천하고 버림받은 자손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다음 세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결심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준비를 위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3. 우리의 할 일

환경문제는 지구적 문제이기에 개인이 뭔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문제이면서 사회의 문제이고, 영적 문제이면서 실제 생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개인이 해야 할 일도 있고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 차원에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첫째, 국제사회와 국가가 시행하는 환경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일입니다. 둘째,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노력으로 탄소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특히 일회용품의 과다 사용은 우리가 반성해야할 사항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력 사용 줄이기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번성케 하여 본래 모습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모습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며 공기는 신선하고 땅은 기름지고 물은 청명하게 흘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이계홍 장로
II 오전 11시	안용곤 목사	박정선 장로
III 오후 2시	조동수 목사	조동수 목사

오후 4시 30분 · 인도: 김익환 목사, 설교 김익환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29:1-2 인 도 자
 찬 송 210(245) 다 함 께
 기 도 김준목 집사
 찬 송 218(369) 다 함 께
 성 경 빌 2:1-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하나 됨을 위한 수고” ... 설 교 자
 * 찬 송 220(278)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사 44:2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4(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13(자연과 환경)...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78(7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롬 8:18-2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피조물의 희망과 우리의 사명”...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79(40)...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연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롬 8:23)		
수요1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성구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모임

- 홍해작전 본부회의 / 29일(주일) 오후 12시20분 802호
- 스데반 임원회의 / 29일(주일) 오후 1시15분 609호
- 마리아 월례회 / 29일(주일) 3부 예배 후 502호
- 2교구 다락방장 모임 / 6월3일(금) 오후 12시

알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모임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이번주 심방 일정
1-6, 1-7, 1-11, 4-3, 5-6, 8-5 다락방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박상준4	2-9	엘리아	맹주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3. 세례식 신청 - 금년도 두번째 세례식인 6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6월 19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 : 6월 4일(토)
 - 세례 교육 : 6월 5일(주일) 오후 1시 609호
 - 세례 문답 : 6월 12일(주일) 오후 1시 609호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 장례
 1. 故 이재경 집사(2교구 이종욱 집사의 부인) / 5월22일 별세, 5월25일(수) 천국환송예배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460명	505명	1,965명	397명	2,812명



보화를 찾아 나선 사람들

아프리카 흑인들이 번쩍이는 돌맹이를 온종일 주어다 주면 일당 몇 파운드를 받는 고마움에 영국인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캐어다 바쳤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 돌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엔 이미 저들이 그 땅을 점령한 후였다.

모든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사회적인 가치든 또는 도덕적인 것이든 인간은 의미와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가치를 찾고 있다. 인생의 보화를 찾아 나선 사람이라면 보화를 보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주변의 환경, 시간, 건강, 지식, 가족, 이웃, 국가 모두가 다 귀중한 보화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이다.

천국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보화다. 그를 모시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